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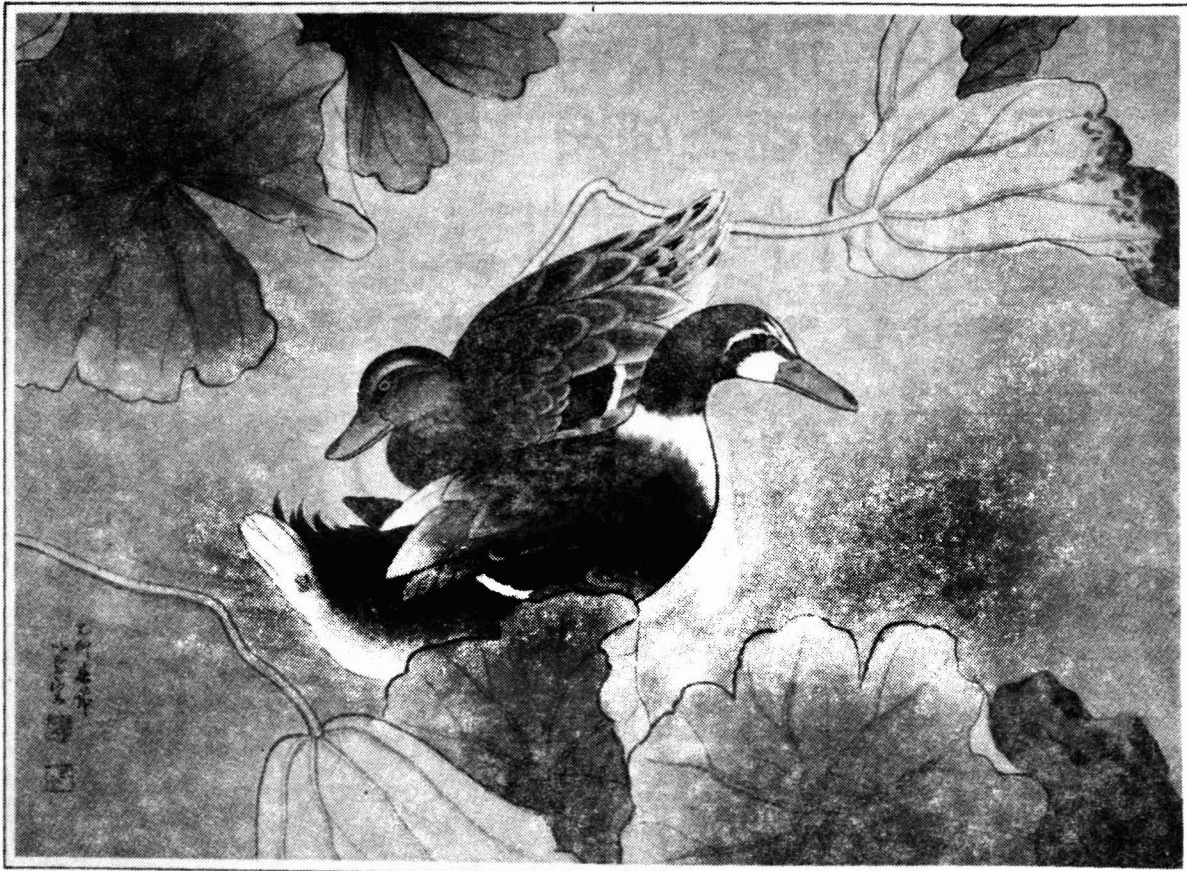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8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4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한인회보

목차 (CONTENTS)

4. 『한국의 밤』 행사 안내말씀
5. 『한국의 밤』에 초대하면서
Welcome to Korea Night Banquet
6. 한인회 활동 및 소식
7. 교포사회 소식 및 동정
9. 씨애틀 한인 학교 교사 모집
10. 사업체 매입시 유의 사항 (3)
11. 씨애틀 공립학교의 최저 능률 확인 프로그램
12. 총영사관 공지사항
『재미 한국인 2세 모국 방문 연구 (수학) 지원 대상자 알선』
15. 【제언】 성장과 형성
16. 『수상』 “봄”
19. “지상강좌” 명심보감
22. 독자들의 편지
23. **My Experience**
24. **I'm Korean-American**
26. 한인회보 광고 이용 안내
28. 내가 선 자리

『 한국의 밤 』 행사 안내 말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존 스펠만(John Spellman) 워싱턴 주 지사와 찰스 로어 시애틀 지사가 1984년 4월 28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함에 따라 우리한인회에서는 미국정부 및 정치 경제사회의 각기관, 단체의장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고포어려분들을 모시고 서로 만나 대화와 사고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온 한미양국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민간의 우정과 동반 자작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며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국위를 선양함과 아울러 시애틀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된 힘을 보여 우리 고민들의 권익을 찾고 지위를 굳건히 하는 바탕을 굳히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잔치에 고민어려분들께서 공사간에 다망하신중에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모임의 뜻과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고민어려분들의 도움을 바라기 위하여 미리 아리하는 것은 행사 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 입장권은 현장에서 일체 판매하지 않고 또한 (2) 좌석 매정도 사전에 하지 않고 임의 착석하도록 하여 당일 행사를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코저 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행사주최국민으로서의 성숙한 사고수준을 과시하심에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내용

일시 : 1984년 4월 28일(호) 오후 6:00

장소 : RED LION INN, SEA-TAC (사략 공항 앞)
18740 PACIFIC HWY SOUTH
SEATTLE, WA 98

입장료 : 1인당 \$ 20.00

입장권 구입 요령 :

1. 한인회 이사, 임원을 통하여 직접구입
2. 시내 한국식품점, 한국음식점에서 구입
3. 우편구입 :

엄 도 승 이사장댁 13631 SE 235 th. St. 631-5863
Kent, WA 98031

홍 인 포 부이사장댁 2535 Medina Circle 454-8550
Bellevue, WA 98004

이 순 모 부회장댁 28805 8th Ave S. 624-7610
Federal Way, wa 98003

1984년 3월 일
시애틀 워싱턴 한인회
회장 오 계 희

『 한국의 밤 』에 초대하면서

한국의 날은 1975년 4월 25일 당시 에반스 주지사에 의하여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 스펠만 주지사가 1983년 4월 23일을 다시 한국의 날로 선포하였고 직접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또 다시 이 뜻깊은 전통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며 이 만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은 보다 나은 내일의 건설을 희망하면서 우정의 손길을 이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사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처음 여기 도착한 때부터 이곳의 생활습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의 이 자리가 서로의 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하며 또 한 상호의 이익을 위한 일과 새로운 이상과 전망을 추구하고 서로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오랜 관계는 쌍방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이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먼저 제의하고 싶은 것이며 이것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한인회장 오 계 희

Welcome to Korea Night Banquet

KOREA DAY was first declared April 25, 1975 by Governor Dan Evans. Since then Governor John Spellman declared Korea Day April 23, 1983 and honored the banquet with his presence. This year, we continue this worthy tradition. Thank you for attending the KOREA NIGHT Banquet. Tonight we reach out in friendship in the hope of building a better tomorrow. We extend our warmest regards to the American community with whom we are deeply involved. From our first arrival here in America we have devoted ourselves in seeking to understand the American way of life.

Tonight, however, we have invited you to a Korea Night, a time for meeting us, hearing a little Korean music, seeing some traditional dancing and listening to some of the leaders who unite us. We hope this meeting will bind us with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one another's needs, and we also hope it will increase awareness of what the Korean community has to offer to America in business interests of mutual benefit, in fresh ideas and outlook, in deep concern and friendship.

A relationship to be true and lasting must be reciprocal. We hope in reaching out to you this day, we can initiate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will precipitate lasting mutual benefit.

한인회 활동 및 소식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청소년 CAMPING 을 위한 관계임원회의

청소년들의 창의, 협동, 단결심을 고취하는 청소년(중·고등학생) 수련회 준비를 위한 관계임원회의를 1984년 4월4일 오후 7:30분에 시내 Hollywood Restaurant 에서 5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바 있음. 장소 및 교통편의, 식사, 프로그램작성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 및 결정하고 수련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짐한바 있음.

한인주소록 정비에대한 안내말씀

본 회보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시애틀지구 한인들의 주소록에 의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가 변경 되었거나 혹은 귀 가정에 본 회보가 2부 이상 우송되고 있으면 한인회 사무실(362-4500) 또는 편집실(547-33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회보를 우송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고 정확한 한인주소를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 청소년 Camp

한인회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전통에 대한 신뢰와 창의, 협동, 단결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캠프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참여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1. 주제 :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키우는 목적)
2. 프로그램 : 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활동, 오락, 영화상영, 경기등 다양한활동
3. 일시 : 1984년 6월 28일~30일 (2박 3일)
4. 장소 : - Camp Casey -
 - ① Whidby섬에 소재하며, 시애틀에서 약 2시간 요하는 거리의 해변가 지점에 위치
 - ② 부엌, 식당, 사우어, 침실, 활동실이 구비된 35명 수용의 기숙사가 있으며 참가자는 이 기숙사에 유하게 됨.
5. 참가비용 : 일인당 \$ 30.00
 1. 왕복 차비
 2. 2박 3일의 식비와 기숙사비
 3. 모든 교육활동 및 오락 참여비
6. 참가범위 : ①중·고등학교 학생 (7-12th 학생들)
②100명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제한함.
7. 신청요령 : 한인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함.
362-4500 (한인회), 488-7453 (임원)
8. 기타 : 학생들은 팀으로 조직되며 각 팀장과 같이 행동하고 엄한 품행규칙으로 Camp를 진행시킴.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교포사회

소식 및 동정

워싱턴주 정구회소식

워싱턴주 정구회 주최로 아래와같이 손계 Open Tennis 대회(복식 및 단식)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뜻이 있으신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1984년 4월 29일 10:00부처

장소: 시애틀 Tennis Center
(2000 Dr. Mr. Martin Luther Kingway)

회비: 단식 \$10.00

복식 \$15.00

참고사항: 상세한 경기내용 및 참가관계는 정구회장 홍사협(전화743-0626)씨에게 문의 하십시오.

육우회 (장년 육구 대회)

시애틀 육우회에서는 제 2회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장년육구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일시 : 1984년 5월 12일 (오) 오전 9시 (어머니날)

장소 : High Point Play Field (변경할수 있음)

참가비 : 없음

시상 : 1등 한인회장배 및 기념품

2등 은메달 기념품

3등 은메달 기념품

동등 참가은메달 기념품

참가대상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30세 이상 (1955년생 기준)으로 구성된 각단체별 기관.

경기진행 : 전후반 각 25분으로 하며 음식시간은 10분이며 오너먼트 포함.

참고사항 :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206) 937-0378.

K·P 번역원 이전

고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던 K.P. 번역원이 시내 중심가에 새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고민 여러분의 언어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실것입니다.

장소 : 607 3rd Ave. Suite #305
Seattle, Wa. 98104

전화 : (206) 682-3480

서예 지도

자라는 2세들에게 우리 고유의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서 아래와같이 회원 및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뜻이 있으신분들은 다음전화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전화 : 낮 (206) 838-2760 (오전 10시-오후 6시)
밤 (206) 767-5825 (오후 5시-10시)

모집요강 및 방침 :

1. 한글을 모르는 2세에게 한글공부와 함께 서예 지도
2. 고교 및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원활하기 위한 필수 한자 서예지도
3. 초급반 및 성인반으로 구분 각종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지도
4. 연 1회이상 서예경시대회 개최
5. 각종 표구 방법 및 동양화, 서양화 프레임 제작 방법지도
6. 성인반 및 초급반 각각 30명 내외로 하되 전가족 참여를 우선함
7. 주1회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대회 출품요원은 별도 특별지도함

우체국시험을 위한 강의

좋은 보수와 Benefit 가 있는 우체국 직원이 (distribution clerk, carrier clerk) 되시길 원하시면 우선 좋은 성적으로 시험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강의를 하오니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5월 7일 오후 7:00-8:00 개강
(월 4회 매주 월요일)

장소: 한인회관

경비: \$40.00 (교재포함)

연락처: 488-7453 (윤영임)

소식 및 동정

신호범 교수 중국 몽고 연구여행

금년에도 Shoreline Community College 의 신호범 교수(철학박사)가 당 대학을 통하여 중국수학여행을 계획 준비하고있다. 본 수학여행의 목적은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방문하면서 현지를 서양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금년여행에는 북경, 몽고 지방(중국북쪽 경계선 근처의 Frontier Life 를 특히 연구), 서안, 상해, (공업지대)와 홍콩이 포함되며 각 지역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경 근처에서는 고대의 궁전, 역사적 건물, 만리장성, 중국정치 중심지, 국회, 학교등을 방문한다.
2. 몽고에서는 중국과 몽고 국경지방에서 양쪽 생활의 비교연구를 한다.
3. 서안에서는 중국문화의 역사적인 증거, 진시황의 무덤과 궁전, 중국 고전문학 연구 등.
4. 상해에서는 중국의 중공업, 항구, 양자강등의 견학.
5. 홍콩에서는 경제 및 사회의 동양과 서양의 비교 및 관찰의 내용이다.

일정은 6월17일에 Seattle 을 출발하여 7월5일에 돌아올 예정이며 출발 2주일전에 Shoreline Campus 에서 중국역사, 문화, 정치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서 여행의 준비를 한다. 만일 대학학점이 필요한분은 Summer School 에 등록하여 15학점까지 받을수있다. 강의와 여행지도는 신호범 교수가 직접 안내한다.

총비용은 \$2,990이며 이것은 비행기 왕복비, 숙박비, 중국 국내여행 안내비, 호텔비, 세끼음식비를 포함하며 이 기회를 이용할 희망자는 546-4736, 778-1972의 신호범 박사에게 연락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을수 있다.

* 여행참가 자격은 시민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희망자는 연락 바랍니다.

운전 초보자에게 회소식

이민초기에 운전면허증 취득은 가장 필수적이며 또한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직장을 비롯한 식생활등과 직결되는 주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주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O. K. 운전학교는 교포가 운영하며 교포가 직접 지도한다고 합니다. 지도교사는 30여년간의 운전경험이 있는자로서 교포들을 위해 특별히 저렴한 교습비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년노하신분들이나 부녀자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수있고 운전면허증 취득을 빠른시일내에 할수있도록 책임지도하며 이중부레이크로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운전교습생 안전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바, 운전면허증 관계로 고심하시는 교포가 한분 없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전화:(206)775-1588, (206)771-3680

김병관 부동산

□사업체 및 주택 알선해 드립니다.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성심껏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시애틀 한인 학교 시간제 교사 모집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시애틀 한인 학교에서는 시간제 교사 약간명을 아래의 요령으로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응모하여 주십시오.

교 사 : 한국어 교사 1명

근무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2시간상당)

*시간당 \$10.00 혹은 그 이상

자 격 : 1) 정규 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의 자격

2) 교사경험 유한자

3)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여함

요 령 : 이력서 1통(사진첨부)을 다음주소로 4월27일

오전4:00 이전으로 도착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오.

Seattle Korean Community School

2611 125th N.E. St.

Seattle, Wa. 98125

(현 시애틀 한인회 사무실임)

* 자세한것은 522-2494 나 365-4128로 문의 하십시오. (5시이후)

시애틀 한인 학교 장

FEDERAL WAY

LEE'S 태권도도장



사범 이 정 언

월요일~금요일 4:00~8:00
토요일 10:00~1:00

*차편가능 (일부지역)

31405 18th Ave S Suite #5

Federal way WA 98003

☎ 839-3055(아름마사회와 대한여행사영)

김 목 공 소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 최신형 공구및 장비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771-8019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생활정보

[운상인 제공]

사업체 매입시 유의 사항 (3)



State I. D. No, 및 Department of Revenue 의 Account No 를 Trade name File, 등도 잊지 말아야한다.

이상에 열거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시기로 결정한 사업체외에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성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관리자"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운영할때 더욱 큰 축복이 내리지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한 "사업체 매입시 유의 사항"의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준 운상인씨는 10여년간의 Broker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업체를 살때 꼭 필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보내 드렸습니다. 운상인씨에게 감사 드리오며 교포 여러분께서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든지 혹은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업체나 집을 사신후에 일어나는 재산의(금전적)손해를 보거나 기라 억울한일이 없으시도록 당부 드리오며 또한 한인회보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민전체가 다 아실수있도록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실에서)

운상인 : 전화 (206) 223-8949
주소 400 Boren Ave. Seattle, WA 98114

* 3월호에 계속하여

2. 계약상 주의해야 할점

D. Leased equipment 유무와 Franchise 여부 장비 List 를 Escrow open 할때 꼭 Seller 와 Buyer 가 확인해서 제출하고 어느것이 Leased equipment 인지 Rent 는 어떠한지 관리유지는 누구 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Trade name (상호) 이 Franchise 인지 그렇다면 Fee 는 얼마인지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E. Equipment Condition

계약 체결시 "All the Equipment is to Be in good working condition at close of escrow" 로 기재함이 흥락인데 인수전에 Repair 해야 할 시설장비의 목록을 만들어 Seller 에게 고치도록 확인받아 들것이며 일단 인수후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인수전에 고치도록 증용할것이며 만약 지연이 되면 payment 할 부분에서 Buyer 가 고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고 약정할 필요가 있다.

F. Business Record 점검

보통 Sales Tax copy (Monthly or Quarterly) 나 Income tax 중 schedule "c"를 보면 잘 알수가있다. 만족할수 없으면 서면으로 Seller 에게 흥보 하되 현장에서 Income 을 일정기간안에 확인하여 만족한것을 조건으로 약정해야한다.

G. 각종 License 신청

City Hall 에서 Business License 를, Health Department 에서 Health License 를(식당업 종사경우) Federal 및

교육정보

"씨애틀 공립학교의 최저 능력 확인 프로그램"

Mrs KAY MULLINS

한인회보 2월호에 게재되었던 고등학교 졸업의 필수과목을 완료하는뒤로 최저 능력시험에 통과하여야 되는 필요조건에 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을 위한 신청서나 선거등록 또는 투표할수 있는데 이해하는 능력과 동시 기입할수있고 온 전면허증 시험이나 그 필기시험을 할수있는 능력.
2. 돈 단위를 셀줄알고 또한 거스름을 할수있는것.
3. 총수입 또는 임금등을 계산할줄알고 확인할수있는 능력.
4. 전자용품의 사용방법을 알줄알고 간단히 맞추는 방법이나 그러한 지식의 내용을 알줄 아는 것.
5. 간단히 음식준비를 하는데의 요소사항과 방법을 이해하는것.
6. 음식선전이나 광고란을 일출수있는것 즉 Want ad, food ads 같은것 등.
7. 생산물품의 표지를 이해하는것 즉 방화상의가능, 주의사항, 또는 위험한 싸인이나 심볼을 구출하는 내용을 일출수있고 영어단어를 이해하고 예로: EXIT, POISON, MEN, WOMEN, POLICE 등과 같은 싸인.
8. 식용품, 주력, 의상의 가격을 대조할수있는능력.
9. 신문의 대목을 알줄알고 그것과의 관련된 제목등을 이해할수있는 능력.
10. 신문을 인용, 스케줄 시간표와같이 간단한것을 비교할수있고 도로지도나 어떤장소를 이해하고 그지시에 따를수있는 능력.
11. 간단히 상업용이나 흥고등의 편지를 쓸수있는 능력.
12. 기초 영어단어나 METRIC 사용을 알고 쓸수있는 것.
13. 전화번호책을 사용할줄알며 긴급사에 중요한 번호를 알아낼수있는 능력.
14. 구두로서 정확히 지시를할수 있는것.
15.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를 찾고 수정할수 있는것.
16. 구두지시에 따르고 간단한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것.

학생은 이러한 시험을 3번까지 치를수 있습니다. 다만 답을하지못한 문제에만 대하여 재시험을 치루고 3번째에도 모를때는 특별히 지도를 받게 됩니다.

각자 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의 능력시험을 합격하기위한 준비로서 수학, 읽기, 영어등의 과목에 이러한 목적을 기준으로한 선정된것이 수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매해 봄마다 3,6,9학년도 학생들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시험점수 결과가 최저에 달하거나 기본지식 획득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할것입니다.

이 최저능력 확인 푸로그램은 각자 학생이 시애틀 공립학교로부터 졸업한후 현재나 장래 이사회에서 능률적으로 기능할수있는 시민이 될수있는데에 확실히 하기위한것을 주정에서는 노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푸로그램은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않고 있으며 곧 시행할 예정임을 침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총영사관 공지사항

『 재미 한국인 2세 모국 방문·연구(수학) 지원 대상자 알선 』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재단법이 대우재단에서 실시하는 한국 학업 연구(수학)하고 지원하는 재미 한국인 2세 학자 지원사업에 협조하여 연구자들이 다수 응모해 줄 것을 유망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의 추천을 받아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응 모 요 령

1. 연구 과제(수학분야) : 한국학분야
2. 지원대상인원 : 3명
3. 자 격
 - 가. 인문·사회과학 전공 학부 졸업생이상
 -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계 제2세 미국인
 - 다. 한국내대학(연구소)에서 수학 및 연구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수있는 사람
4. 지원내용
 - 가. 대학원생 : 월 체재비 ₩400,000(\$500.00상당)과 입학금,등록금
 - 나. Post DOC 이상 연구자 : 월 ₩640,000(\$800.00상당)
 - 다. 지원기간 : 1년
5. 지원유효기간
 - 대우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자를 확정할 날로부터 4개월
6. 신청서식
 - 다음사항들을 기술하며 주미 한국영사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본인 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한다.
 - 영사관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206)682-0132,682-0133 #1125 UAL Bldg. 2033 6th Ave. Seattle, Wa. 98121
 - 1)성명 2)소속 3)주소 및 전화번호(직장,주택) 4)약력(부모 및 본인) 5)신청자의 주요논저 6)연구계획에 대한 신청자의 간단한 구상,목적(수학의 경우 수학의취지,목적등)200자 원고지 20매분량 (영문으로 쓰는경우 4-5pages type written double spaced)
 - 7)한국내 연구·수학 희망학교(연구소)명 2-3개 8)주미한국 영사관 의 추천서
7. 신청기간
 - 1984년 5월 31일까지(신청서 도착일 기준)

8. 신청방법

신청자의 개별적인 우편서신 신청

* 수신처: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대우센터 901호

대우재단 사무국

9. 지원대상자 정보 : 추후 개별통지함

10. 기 라

가. 연구비는 한국에서 대우재단이 수혜자 본인에게 한화로 지급한다.

나.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 한국내 연구소, 수학기관(학교,연구소)의 선정 및 출입국에 따르는 사항은 전적으로 수혜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도록한다.


한인회비에 관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회비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성인 1인당 1년회비는 \$10.00 부부가 \$20.00이 됩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언제나 환영되며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비를 내실때는 수표를 아래의 주소에 보내어 주십시오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Peoples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지난번 84년도 1월회보에 회비를내실 봉투가 첨부되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그간 84년도 회비를 내신 회원여러분에게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오 계 회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다과 ※ 도나스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밋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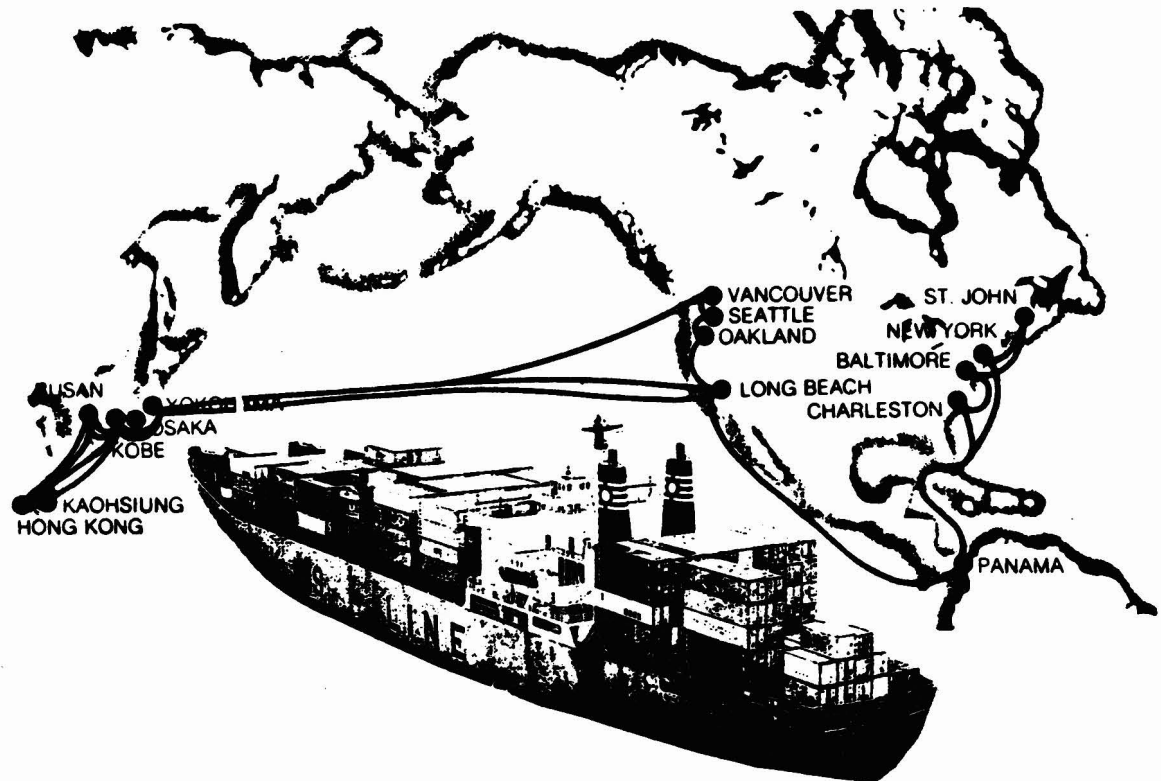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홍비치 지점 (213) 437-0431
뉴욕 지점 (212) 422-5959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600
시카고 지점 (312) 6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밴쿠버사무소 (604) 669-2439
포틀랜드사무소 (503) 228-9818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0
찰스턴지점 (704) 365-4582

제 언

성장과 형성

— 한국선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

김동진 목사 (워싱턴 한인루터교회)

이룩되는 과정에 있어서 빌려 두가지 요소가 뒤따르게 된다. 하나는 성장 과정이요 다른 하나는 형성과정이라 하겠다. 이 두가지의 상호관계는 깊은 유기적인 함수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 따로 분리하여 생각 할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성장 과정은 그 과정으로써의 통로가 따로 있고,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제길을 따라 이룩 된다는 말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들은 동시에 같은 일직선상에서 일어나 되 성장과 형성은 정비례 하여 전자가 커지면 후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만들어지고야만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래 된지가 금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 이렇듯 저렇듯 그 원년의 기준을 놓고도 금년이 아니라는 등 말도 많은 것 같고 또 1세기에 이르러 이만큼 자랐으니 무슨 큰 축세라도 크게 치루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여론이 구구 하다보니 금년 안으로 무언가 큰 행사가 펼쳐 질듯도 하다. 물론 무어라고 해도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러 800만 신도를 자랑 할수 있는 것은 금년으로 선교 200주년이 되는 천주교에 비해서는 물론 그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닌 불교보다 더 앞지른 경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장의 의미 하는 것이지, 그 성장 자체가 곧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들어내 보여준 참신성을 의미 하나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 되어왔으며 또 어떻게 형성되어 지고있는나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그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 거창하게 늘어놓을것이 아니

라. 지금 성장 발동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이 문제만은 주도면밀하게 꼭잡고 넘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지하는 바대로 기독교의 진수성은 주인 없는 독방에 사장된채 도리혀 이상한 계마리들이 판전을 벌려 놓은지가 오래이고 보면 무언가 교회가 자라면서 이루어진 형성 과정이 잘못 되었음이 분명하다. 마치 연한 나무가지가 자라면서 잘못 뻗어나가 순이 잘라진채 일만 왕성하듯, 보여지는 눈요기로서는 그별사하나 꽃은 폼도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역시 진실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기독교 신학의 정립이 결핍 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한국에도 신학이 있는가 하는 말이 있었을때가 있었다. 곧 이 말은 신앙은 있어도 신학이 부재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야 할것으로 한다. 이만큼 한국 기독교는 지금 남의 나무 한 모서리에 혹처럼 달린 버섯과도 같이 자라고 있는 셈이다. 버섯이 나무 밑 줄기에 달려 있기는 하나 버섯 그 자체가 나무가 될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독버섯일경우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만 당할뿐 아니라 나무의 밑 부분을 썩히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편승되어한 국적 사마니즘이 판치고 보니 성경의 지시라 하여 하루 밤사이에 홍길동 목사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런 광신적인 신앙이 도리어 더한층 큰 추세를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양상이 바로 이래도 좋은가 묻는 것이다. 성장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에 말기기만

해도 제대로 때가 차기만 하면서 절로 자라는 법이다. 그러나 형성과정만은 그런식으로 해울수가 없다. 역시 가지를 쳐주어야하고 집불일때 가서는 집불쳐 주어야 하듯, 한국 기독교의 과제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자라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라나는 가지를 잘 형성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다져지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해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챙기는"듯한 인상이 말끔이 씻어지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가 100년을 자라오는 동안 밀거름이 되어준 많은 순교자 들의 그 썩어진 한알의 밀알들이 엉뚱한 다른 주인의 이름으로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의 하나라도 세 창고에 쌓여졌다 하여 많은 알곡들을 보고 "이제는 먹고 마시자"하며 자위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 그들이 당한 고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거늘 요즈음은 교회 사택도 맨션 아파트야만 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해외여행도 많이 드나 들어야만 실력있는 목회자로 인정받는 따위의 그릇된 인식은 하루속히 가셔주었으면 한다. 특별히 조찬 기도회의 명목으로 고급 호텔에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한 바탕 벌리는 따위의 걸치려는 재삼 재고 되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기독교 100주년을 맞는 1984년은 과거에 잘못 형성 되었던 과제가 바로 정립되어 던난 어금니가 말끔이 가셔짐과 동시에 한국기독교의 면모도 새롭게 단장되는 계기가 되어 줄것을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는다.

오늘은 토요일 해산이 썩어있는 침묵하고 상쾌한 아침이다. 보광저는 뒤돌고 따사한 이 날씨가 나를 이끌어낸다. 특사복사하게 이끼끼 잔디밭을 슈리닝 차림으로 서너바퀴 거닐러 본다. 허리를 굽혀 다 뛰로 제쳐보고 좌우로 꼬았다가 돌아보며 양팔을 올렸다 내리는 국민체조를 하고보니 피로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한다. 또 감비백가 받드득 소리만만큼 가슴을 크게 열고 숨을 쉬었다. 참 오랜만의 큰 호흡이었다. 이 마음도 임자를 잘못만나서 단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마음에 용서를 받았다. 아니 작은비와 짧은 해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환경의 지배속에서 벗어날수없는 범죄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물음으로 만들어져 온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서 자연환경은 4계절로 분류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봄, 단려시키는 여름, 결실을 맺는 가을, 인내를 키워주는 겨울, 이것이 이 땅덩어리가 사막지기 전에는 반복되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신기하게 만들어 주신데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누가 와 달라고 또는 가 달라는 오논봄, 가논봄은 결코 아닐 것이다. 기약도 없이 찾아왔다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찾아오는 봄을 무안치않게 꼭 안아주고 싶다. 임 맞추어 주고 싶다. 내편에 있어 달라고.....

이러한 사색에 물리다보니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내 어릴때의 고향생각이 저절로난다. 남쪽으로 바다를 끼고 그 주위에는 야산들이 주물주물 서있는 나즈막하고 넓은 고을엔 초가집과 함석집으로 또는 대궐만한 기와집들로 잔 어울려있는 아담한 마을 그 옆 동산 밑으로 작은강물이 바다로 연결된다. 동네 한복판을 동서로 관덕봉은 신장으로 에는 마차(馬車-말구루마)나 우차(牛車-소구루마)가 운송수단으로 활력 다니고 언기를 세개쯤 밟는 목란 후덕이 이 따끔 골러가긴한다. 마을 북쪽으로 나란히 서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질때 선립된 건물로써 교육의 초재지로 등.하고때엔 고복을 얻은 생활로 길을 광매운다. 이런 내친들 고향에도 봄은 왔을 것이다. 깨나리가 봄의 전초역으로 노란꽃잎을

떨리며 그 등천아때 상얼음이 사드르 녹는다. 겨울에 얼었던 물에서 스케이트를 라다가 손발을 녹히느라 마른꽃잎을 테웠던 세까만 재 밭에는 파릇파릇한 연한 풀잎이 솟아 오른다. 제2세가 탄생하는 것이다. 부모의 보호도없이 말이다. 있다면 재가부의 따듯함 따이랴. 이것에 비하면 인간은 행복한다. 이 행복을 알고있는 것일까. "도람치고 가재잡고"란 개인처럼 봄을 맞아 행복도 발견해보는 것이다. 이를조용이면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 벚꽃도 피기 시작한다. 목화처럼 눈송이처럼 하얀 벚꽃이 만발하면 펄히 따르는 부속봄은 벚꽃이다. 더위를 갖기 위해서 달려드는 벚꽃은 사랑의 데이트가 꽃잎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쁜가지락도 하나 꺼들라치면 앙양거리는 벚꽃에 포입까봐 그들의 사랑노래가 귀찮을때도 있었다. "젊어서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는 귀걸이것에 두고 한말인가 그러나 부지런히 모아논 그들의 양식물 인가는 사정없이 빼아 버린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신하기 위한 것이다. 오례산기 위한 옥심인 것이다. 더 오례산기 보람 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밭에 감용사가 떨어 지기를 임벌리고 기다리는 인생 술에 물란듯 물에 술 탄듯 사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짙고 맺고 달콤데로 많은 몸들처럼 알차게 사는 것이다. 알차게 사는 것은 마음을 열어 재치는 것이며 단혀있는 마음은 감정역시 도 빈약한 것이다. 풍부한 감정이 인생의 저물질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세사와 봄의 아름다운 꽃잎에 열려지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민물벚꽃도 봄의 구질을 한다. 내 살던 초가집 터 밭두렁에나 자갈밭의 신각로 옆에는 초도록하게 혹은 외롭게 피어있는 이 꽃을 보아도 봄의감정을 충분히 느껴준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서는 꽃잎이 뜯기거나 뿌리채 뽑히거나 사약으로 물산물 당하고있다. 하기가야 나도 집 뒤뜰이 먼데를 밟아떨어 파 없애고 새잔디를 심은 큰 공사를 했지만 친대라는 봄의 상징물이다. 팔자가 사나여 서있기, 그러던 친대꽃은 어떤가 좋은꽃을 골라 사서 알맞는 장소에 정성들여 가꾸니 인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친대라고 사랑받는 인간들도 있다. 귀여운 애기들은 부모 밭에 사랑받고 부모들은 속세에가서 친대밭을때가 있는 것이다. 이곳대학가 웅분치못해서 친대밭을때가 있고 소수민족이라고 친대밭을때가 있다. 내 어릴때의 희망과 포부는 거대했으나 지금은 이골이 무었인가, 열간이로 변해 버렸다. 아니야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피어도다" 안될일이 있을수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노력중이니 "가다가 중지 곤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갑자기 시한계를 쓰고 싶은 심정이다. 내 생애가 산만해지기전에 다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보자. 빨갯게된 진달래가 앞뒤 야산을 덮으면 친구들과 기어올라가 이 꽃잎들을 따서 언골에 붙이고 봄오리 깎어서 채상위에 모셔놓든 주, 마그우물이 생가난다. 아직도 나처럼 살고 있는지 꽃소식으로 안부를 전하고 싶다. 어릴때의 추억은 이렇게 생생한것일까. 난데없이 밤마다 소리가 들린다. 겨울내 묵었던 때를 벗기기 위한 옷들, 표백제로 양재물에 넣어서 녹얇아 끈이 무력무력 나는 빨래거리를 큰 함지에 이고 큰자관 작은자관 끈리 무릎높이의 따뜻한 냇물에 또다닥 또다닥 태치는 람스러운 것가움을 만경데에서 기다리는 초너들의 밤안이 소리는 산물림에 불란 대나무 숲속의 새까만 굴뚝새가 도망간다. 잠아도 머지 못하는 이새들 사도 잠겼다고 따라 다니니 다리만 피곤했지 참새는 이에 비하면 양반이다. 소고기도 전미가 있으니 이런 잔난이 나에게는 소화제가 되어서 집에 오면 이것저것 닦치는대로 주어 삼킨다. 먹는 것이면 다 꿀맛이다. 동태이를 먹어도 소화시킬때니까. 배를 채우고는 또 나가서 장난들 하다보면 해가 서산에 기울자 집에는다. 저녁반찬은 씩씩한 산나물이나 돌나물 담랭이도 끼어든다. 또 거운물에 잠시 적셔낸 엄마의 양근으로 삼기를 넣고 깨소금 넣어 무친 솜씨를 누가 흉내내리. 이전 엄마의 솜씨는 어 다 가셨는지 영남매를 건강하고 닭오 자없이 키워준 큰 엄마의 푸짐했던 음식에 지금도 나는 거운물 유 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엄마손이 음식에 인쇄하지 않았던 덕분에 오는 나는 지금도 죄게 따지는 못한다. 봄을 따는 엄마 솜씨 생애에 그양보낼수 있으리라 한끼 반찬이라 도 미나리 나물로 때우고 싶다. 원귀 잔년 여름에는 인심언어가며 나뉘며 미나리가 수었던 겨울날

세에 다 얻어 죽어 버렸다.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이나 굶년봄은 공임도 넘어가야 되겠다. 인간은 이렇게 아쉬움에 사는것일까. 명년봄은 한데점심 컷되는 봄으로 기다리면서 공돌어 키워볼 생각이 다. 대신 이곳 불상수 씩으로 입을 크게 벌리게 해주었으니 고맙다고 생가해야지. 결국 봄이 먹는 화제로 변해 버렸다. 하기가 인간은 먹어야 하니 까 많이 먹고 건강해서 행복을 누려야하니 먹는데 인쇄라고 애조이해서 언골생이 노랗지 않게 먹어야. 얼마나 먹을것이 많은 이곳인가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후 많은 농포들이 배물은 생물을 단행던일을 회고해보자. 역사 좋은 고향이 되는 과거일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떠올아보고 넘어다 보아 보람있는 삶을 선행하여 먹을 물고건처럼 온세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봄은 오고 또 오고 자꾸만오지,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없이 많이야, 그러나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고향은 이대로 일 것이다. 어릴보리 쌍들이 새파랗게 물러오는 풀진 작은물에는 허리쯤고 배받된 노인네들의 불선영한 시력처럼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눈앞을 가리고 그옆에 양치바를 밭두렁에는 노내리고 서 리웠던 더물 추억을 건지고 깎아논 벚꽃다 들은로 힘차게 물러오는 장다리가 노란꽃잎 피어 율나비랑 노랑나비를 유혹하는 손바닥만한 옥로 그익을 작은 몸으로 울렸다 곱히 내리고 또 울렸다 내리며 사랑 찾는 중달새 지저귀는 내귀에 녹음하는것처럼 들린다. 당장이라도 한번 가고픈 마음이 짙어간다. 한 열물전에 이곳도 벚꽃이 피기는 했지만 생기고 벌떼없는 시물시물한 꽃잎은 외롭고 처량해보인다. 제가 선자리에 자리 못잡고 편꽃은 내눈동자 속에서 안라까음을 면하랴. "만물은 생애의 언장이라"지만 나는 이말속에서 가슴이 아픔도 이곳 벚꽃의 사연에서 배운다. 우리집 뒤뜰에는 한그루 늘은 벚나무가 꽃송이는 떠엄떠엄 때떨없이 되었다. 잔년에도 제잔년에도 가지들을 쳐주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종자가 그럴 모양이다. 벚나무의 매력은 꽃잎이 활짝피고 진다음 잎이 솟아 나오는 것이 다. 꽃잎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김은 강인한 뿌리일 것이다. 인간들이 벚나무에 비유해 보아도 모순점은 없을 것이다. 우주를 침복하는 것보다 자연을 배우는 것이 적서적일 것이다. 자연은 마음이 오과함은 두너니 머리를 굴물하면 될터지만 남근

이요 마음은 메마를 것이다. 이러한 자연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이자연속에 내마음을 푹 파묻고 싶다. 내 고향보다는 빈약한 이곳의 봄이나마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격으로 만끽해 보고 싶다. 내 어릴때 자라던 내 고향의 아름다운 봄을 찾아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메마른 내 마음을 풀면서 봄을 마음 하고 보내련다.

1984년 3월 24일 장부관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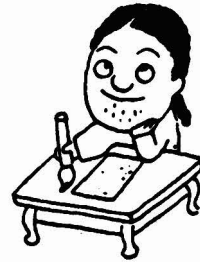
린우드 TOPrin인쇄소

- 청타시설완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보,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 Sam Yun : 878-3647 이양남 : 363-0443
- Susan Kim : 392-8535 May Lee : 881-6274
- 고유진 : 771-3229 김일영 : 874-4452
- 조인 : 364-5966
- *Grocery - 건물포함 가격:25만+재고 10만다운, 년매상 35만, 월손액6,000
- *Grocery - 가격:45,000+재고 25,000 D/N 월매상 12,000
- *세탁소 : 245,000+재고 65,000 D/N 월매상19,000+ Gas (Plant + Agency)
- *Coin Laundry 와 Agency-Marysville 에 위치함 129,000 - 3만D/N (첫3개월 Free Rent) 큰 샤피센터에 위치한 새것임
- *Fish & Chip(6일영업) 79,000+재고 35,000 D/N 월매상7,500
- *고층건물 내식당(5일영업) 175,000+재고 7만 D/N일일매상 800불
- *Coffee Shop- New (Down Town) 85,000 - 40,000 D/N 위치 전망좋은
- *Shoe Repair - All Cash 25,000+재고 월매상2,800

『원고 모집』



한인회보는 교민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이민생활에서 얻은 색다른 성공담, 실패담, 미담, 인정과 해학이 깃든 에피소드 . 그리고 우리의 습성, 문화, 가치관의 갈등속에서 터득한 새로운 삶의 예지를 담은 글들 :

- 시
- 시조
- 풍트
- 수필
- 수상
- 회곡
- 단편소설
- 여행기
- 탐방기
- 풍물묘사
- 논문
- 비평
- 생활정보

이 외에도 한인사회에 대한 제언 또는 특별한 문제나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잘 엮어서 정리한 독자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고 편집부의 재량에 따라 삭감, 편집될수 있으며 게재여부도 결정될수 있습니다.

(한인회보 편집부)

誌上 강좌

명심보감(明心寶鑑)

어떻게 보답할것인가 (孝行篇)

부모는 우리를 낳고 기르기에 그심 참담 하였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에 보답할것인가?

詩 에曰, 父畜生我하시고 母含鞠하시니 哀哀父母어, 生我劬勞샐다. 欲報之德인댄 昊天罔極이로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답답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기 얼마나 수고로우셨으랴! 그 은혜 값고자 하나 그 은혜 하늘같이 끝이 없는것.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

효자의 아버이 섬김은, 기거 하심에는 공경을 다하고 병양함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때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때엔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냄에는 엄숙을 다한다.

子曰, 文命은이시든 唯而不談하고 食在口則과치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시거든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말고 음식이 입안에 들었으면 뱉을 일이라.

太公이曰, 孝於親이면 子亦孝之하나니 身既不孝면 子何孝焉이리요.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내게 효도하리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게 되겠는가.

孝順은 還生孝順子요 又逆은 還生五逆者라 不信이면 但看蒼頭水아라, 點點滴滴不差秒니라.

효순한 이는 다시 효순한 자식을 낳을것이요, 오역을 범한이는 다시 오역을 범하는 자식을 낳으리라.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저 처마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긋나는 일이 없는것을.

***(孝) 오역 (孝逆)**

임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죽이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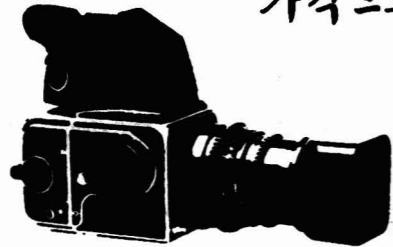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KO'S 사진관 & VIDEO

최신 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촬영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을 사진
- ◎필름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환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환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대여

전화 (206) 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Center Oriental Grocery & Gift

중앙식품

- 한국, 일본식품 ● 선물, 일제그릇 ● 싱싱한 야채류
- 신선한 생선 및고기류

● 숙주나물

● 각종 일반찬



● 영업시간 일주일내내

762-5620

● 9 A.M. - 9 P.M.

9641 - 15th Avenue S W
Seattle, Washington 98106

南大門飯店

SOUTH GATE CHINESE RESTAURANT



● 북경식 중화요리

● 단체, 연회, 환영

영업시간

일~수요일 11시~오후9시

목~토요일 11시~오후10시

(206) 248-2250

15859 Pacific Hwy Seattle, WA 98188

(시백 공항앞 : 160가와 Pacific Hwy 코너)

독자들의 편지

한인회비를 보내면서 몇자 글썽을 보냅니다. 고등학생 두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언어장벽으로 자식을 가르치는데 궁급하고 익문점이 많게 살아온 이민생활입니다. 이따금 오는 한인회보를 들추면서 안라깝고 궁급했던 글썽 일을 적마다 그렇게 속이 후련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보는 기사라도 저의 바라고 알고싶은 글은 드문 것 같았으나 꼭 좀 이런기사가 있어 주었으면 바라던 기사가 실려있어 얼마나 그 많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고교 성적 관리요령 및 대학교 진학안내" 라는 글썽 읽고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4학년짜리 두아들을 데리고 이민온지 어언간 대학을 몇달후면 보내야 하는데 비록 언어장벽이 가려있어도 두 아이들의 학교 학부형 회익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미국교육에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 안라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어렵고민, 학부형들께 큰 도움이 될수있는 글썽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말은 안해도 이렇게 자식교육에 궁급중이 많은 학부형들이 많이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인회에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펜을 놓을가 합니다.

1984년 3월 13일

한인회보 발행인 귀하

하시는 귀한일에 변영 있으시고 보람이 날로 크사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한글로 번역된 "은전면허 시험 문제집"이 필요하기에 부락의 서신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83년도(몇살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인회보지에 문제집이 수록된것을 건히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보니 다시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한인회보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용히 잘쓰겠습니다. 바쁘신중에 이런부락까지 드려 거듭송구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적겠으니 가능하신대로 속히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일에 주님의 가호를 빌며 이만 난필을 놓겠습니다. 늘 평안 하십시오.

1984년 3월 15일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와시다!

하바 하바 비데오 및 사진관

비데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국영화·연속극·시극·뮤지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출장 촬영 환영●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결혼·약혼·돌·회갑사진
영주권·여권·시민권사진
각종연회 및 파티사진예약
받습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젊은이 란

By Cho, Chai Hui

My Experience

I was born in Seoul, Korea and cam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age of three. I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about 16 years. As a Korean student who grew up in the U.S., learning how to associate with others was very difficult.

In the middle of my Junior high school years, my family moved and I had to make a completely new friends. The junior high school I went to was a predominantly white-American school. The earlier schools I went to had a fair mix of Asian students to white students. Again I had that same feeling about making new friends as I did when I started kindergarten many years before. As time goes on you feel much more relax with your self and your new surrounding and then you start to make new friends.

The high school I went to was also predominant with white -American students. I already had some friends at the start of my high school. Therefore, it was much easier tottransfer school then it was to transfer earier from two different junior high schools. At the high school I went to, it had a club called the Asian Students Coalition (ASC), were the club was for new incoming students into the high school to meet other students. In having a club like this in school, it should help many students who have just recently come to the U.S. to meet new people without a lot of stress to make new friends. A social club like this in a school is very helpful to students to make new friends. A problem with these clubs is that many students who have recently come to the U.S. do not feel they would be accepted by other students in the club and therefore do not utilize the help that this club could do for them. Many students would try to just associate with their own race. For example, Vietnames students would make friends only with other Vietnames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would make friends with other Koreans. Joining a social club in your school is a very good way to help make new friends of all races.

During my senior year, I became president of the Asian Student Coalition. Within the year, the students who would come to the meetings would be students who have been in the U.S. for a fair amount of time. Trying to urge other students to come to the meetings or the social activities was very difficult problem to overcome. Some methods that our coalition tried were to have refreshments at the meetings and have social activities that were interesting to the students. These efforts had some positive results, but students would not have to be involved in such activities because of some type of motivation. I would not consider my efforts as president of the ASC a total failure, but it would have been a lot more satisfying if students would join because they wanted to meet new and different people.

I know from my pas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new friends especially if you a student who has just arrived in the U.S. I encourage to all students, joining a scoail club within your high school will be a satisfying experience.

I'm a Korean-American

I am a Korean in America. So are my parents. And you might be also. However, there is a subtle difference in my case. I am a Korean born in America. Many traditional Koreans view my situation as unfortunate, but they are wrong. Being a second-generation Korean is a great advantage.

I have the benefit of two cultures, each with its own richness in knowledge, tradition, folklore, attitudes, and lifestyles. Though my education was from an American society, formal education is ONLY a part of the formation of a person. The most crucial element is the family unit. Parental care and guidance is the key to completing the person as a whole. Being an American-Korean was such a wonderful thing to me when I was young. I could speak, understand, and read two languages. I could eat kimchee or hamburgers. Moreover, I could understand two different cultures because I was the fusion of the two. It was fun when I was young, as it should be, but now it is an integral part of myself, a part which should be taken advantage of and used to its potential.

It does not matter what I do, I will always be Korean. I will always be a minority in this society, but this fact is what drives me to work diligently. In essence, I am a Korean with equalled intelligence and understanding of an American. With just a little harder work, the benefits can be increased fantastically. We, the Korean people, must make a good name for ourselves. Second best should not be tolerated.

I feel my hard work has paid off, now that I am in professional school. And I strongly believe that if it worked for me, it can work for anyone who sets his/her mind to it. Achievement is easy with determination. There is great promise for the Korean society. We have so many young people, all growing with the added bonus of two cultures to rely on.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와시다!



로명재 산부인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833-2580

Federal way office

927-8440

한인회보 광고 이용 안내

한인회보를 신속한 한인사회 소식과 함께 사업주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1회씩 회보가 발행되며 발행부수를 늘여서 광고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장기계약업주(3개월이상 계속광고)들에게는 10%-30%까지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한인회익 활동을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격별 광고료

일반광고

내부 전면 120.00
 내부 1/2면 80.00
 내부 1/4면 50.00
 3행광고 10.00

특수광고

뒤표지 전면 200.00
 뒤표지 안쪽 전면 150.00
 앞표지 안쪽 전면 180.00

* 광고 이용 전화 : (206)547-3344
 (206)362-4500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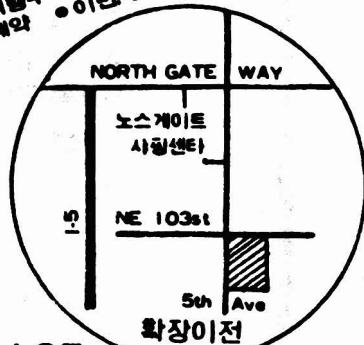
IATA, ATC, PATA 회원

523-7057

* 24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 국내외 항공판매 (일본도 가능)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각종 여행수속
- 호텔, 렌트 카 예약
- 각종 항공권
- 이민 협을 안내
- 각종 번역 및 통역
- 항공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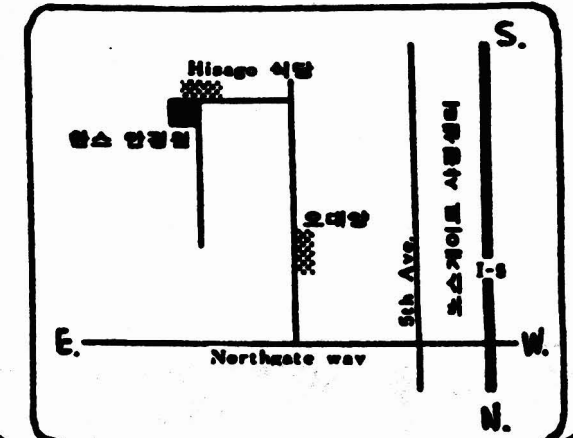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린우드인쇄소
 (206) 775-7667

청첩장

정성드려 인쇄합니다

한스 안경원

- 안과 처방에 의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Appointment에 의한 정확한 시력검사
 - Medicare 및 직장건강 보험의 vision care service
 -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안경테 및 렌즈
-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B)363-5007, (H)362-8330



YAMAHA KAWAI STEINWAY SCHIMMEL

세계피아노사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자니전파사

비디오 TV 시계 카메라

전문수리

전화 241-5144

(현대식품 옆)

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내가 선 자리

미국에서 십년넘게 살아온 나는 여러 한인 청년들에 비해 미국 생활을 많이 한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보다 많고 여러가지로 미국 생활에는 별로 애로가 없으며 미국인 못지않은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내가 대학을 다니고부터 확실히 느낀 점이란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미국 친구들이 많아도 우리는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을 것이며 백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힘든 점이다. 나는 직접 이런 차별을 다행이도 뼈저리 못느껴 봤으나 나의 근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런일이 일어날때마다 사후대책을 생각해 보았으나 뚜렷한점은 없고 즉 우리는 백인들보다 두배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배달민족의 후예로서 큰 희망을 가질수있다. 즉 한국 사람의 특별한점과 역사적인 전통이 우리를 다른 소수민족위에 뚜렷이 올려 놓는다. 한국 사람들의 특수한점은 먼저 몇천년의 전쟁과 소란속에서도 굶지 않고 아직도 한국이라고 부를수있는 그 한반도는 우리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인심은 나쁘기보단 좋기로 유명하고 인정은 두말할 필요없이 한없이 줄수있고 무엇이 생기면 나누어 먹는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풍습들이 아니냐! 경제적으로 한국 사람들 만큼 저축정신이 높은사람이 어디있으며 열심히 일하는데에는 모두를 놀라우고 있다. 이러한 좋은점을 우리는 높이고 발휘하여 백인들과 다른민족들에게 표본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평가를 받을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상의 슬기로움, 풍습, 전통을 미국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빛낼수있다면 한국인의 기본은 창조될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앞 두고 특별히 우리 한인 청년들은 한인사회에 앞장을 서서 이 목적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질때는 우리의 국민교육헌장을 잠깐 생각해 보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잊으면 안될 문장인것 같으며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택해 주고 있다.

제일 음악 학원

- 새애를 최초로 개원, 선착순 10명 1개월 무료지도(월 4회)!! 자녀 교육?
- 피아노, 각종악기, 성악개인지도.
- 성인키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음악, 복음성가, 교회 반주자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한·미인)
- 출장지도, 교통 편의 가능성.

367-2273 (FOR-CARE)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순 한국식 중화요리

四川飯店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실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집채, 팔보채, 팥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 TO-GO도 합니다.

146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치과

PHONE 778-0707

RONALD D. CANTU D.D.S.

치과의사 로날드 D. 켄투

6226 BUILDING SUITE 2-A

6226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이 광고를 지참하시는 한인에게

15%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15% off

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발 243-5160

린우드 TOPrin 인쇄소

- 청타시설편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소,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김철준 보험

새해에도 교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승하심과 번영하심을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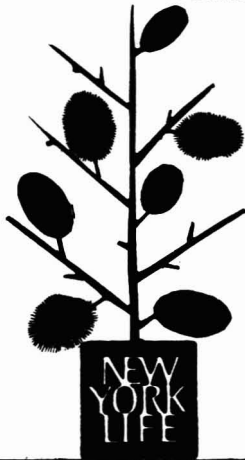
※건강보험: Blue Cross, Blue Shield, 2인 이상의 Group
건강보험 및 각종 건강보험을 알맞게 선택하
여 드립니다.

※생명보험: 기간, 적금, 장례비 Mortgage 등

※교육보험: 높은 이자율을 보증받으며 누계되는 이자에
대하여 세금 면제를 받는 보험, 현 11%의
이자율.

※노후연금보험: IRA, Keough 등

※※제반보험 Claim, 보험 상식에 대한 문의에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시애틀 사무실	546-6586
집	367-1534
타코마 사무실	588-0333

18130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

리우드 TOPRIN 인쇄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HN, MAN-SOP
12924 B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